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매년, 그리고 매일,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계획한다. 그리고 대부분 새로운 삶을 만들기보다는 실패하고 만다. 본인의 의지와 실패는 사실상 무관하다. 실패 이유 중 하나는 새로운 삶을 위한 계획에 내적 의지만 있을 뿐 외부 환경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계획한 사람은 저녁 회식을 즐기거나 취침 시간을 앞당겨야 하는데, 실제로는 환경은 그대로 두고 의지로만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코로나19만큼 우리의 삶의 조건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사례는 근래 없었던 것 같다. 정치적 혹은 경제적 상황 역시 큰 충격이 있었지만 개인의 일상을 어떻게까지 바꾸지는 못했다. 이 상황은 거의 전장이나 쓰나미를 겪은 지역의 '그라운

코로나19와 봄이라는 기적

드 제로'와 같은 현실에 가깝다. 그 결과는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나는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면서 공동체가 약화되고 있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날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의 복잡하고 바쁜 삶이 새롭게 성찰되고 있는 점이다.

사람들의 삶이 단순해지고 있다. 수많은 사회적 관계는 가장 중요한 관계로 축소되고 있으며, 누군가는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 이후 이 두 가지 특징이 어떤 양상으로 이어질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보 과잉의 측면에서 '마스크'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주목해 본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전문가와 비전문가 및 일반인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양산되고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를 또한 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 '마스크'에 대한 관점이 대표적인 예인데, 최소한 국가인중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입장부터 해외 사례를 들면서 굳이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쓸 필요는 없다는 관점까지 서

로 다른 정보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지금처럼 감염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는 현실에서 대중은 불안 속에 극도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으며, 마스크를 사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대형마트 앞에 줄을 서는 풍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태도로 이 과정을 견뎌야 하는 걸까? 우선 수많은 정보 가운데 핵심 원칙을 가려내서 준수하고, 나아가 삶의 불필요한 요소들을 걸러 내는 작업을 수행하는 일이 필요하다. 동시에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 일상화되고 현실에서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남과 접촉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도 결국 공동체의 힘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지난겨울은 유난히 온화했다. 과일이나 벼농사 등 열매를 맺어 추수를 하는 것들은 추운 겨울을 지나야 속이 팍 차고 맛이 난다고 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아무 일 없는 인생이야 없지만, 이러 저러한 고통을 견디고 어려운 시간들을

거친 이들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문제는 그러한 순간들을 어떤 자세로 직면하고, 그 시간들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자연이 제공하는 추위가 아니라 인간 사회가 만들어 낸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있다. 언젠가, 봄은 올 것이다. 분명, 봄은 올 것이다. 시인 김소연은 '봄'을 가리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기적'이라고 했다. 그 '기적'을 위해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점에서 봄이 오는 순간까지 어떤 현시점에서 채울 것인가 하는 점이다.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혐오,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채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맞이할 봄에 더 많은 꽃을 피우기 위해 땅을 다지고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가 결정해 할 우리의 몫이다.

"모든 전쟁이 끝날 때마다/ 누군가는 정소를 해야만 하리./ 그러저러 정돈된 꼴을 갖추려면/ 뒤편 저절로 되는 법은 없으니.//.....// 누군가는 벽을 지탱할 / 대들보를 운반하고,/ 창에 우리를 끼우고 / 경첩에 문을 달아야 하리.//....."(비스와바 문보르스카, '끝과 시작' 중에서)

종교칼럼



임형준  
순천 빛보교회교 담임목사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온 나라가 긴장과 위기 상태이다. 모든 국민들은 일상의 계획을 취소하거나 수정하고 관망하며 순간 바뀌어버린 생활 환경에 적응하려고 몸부림친다. 필자도 긴박한 국가 위기 현상을 보며 잠담한 마음으로 글을 쓴다.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새로운 희망의 세상이 온다는 것을 역사가 늘 증명해 주었지만, 고통의 현실 위에 직면한 우리는 마지막 때인 것처럼 발버둥치며 병마보다 깊은 상처를 서로에게 떠넘기고 어두움의 터널에 빠져들게 된다.

지금 우리 사회는 깊은 슬픔과 두려움 앞에 서 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나 충격적인 사고·재난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심

고난의 재해석 그리고 '희락'(喜樂)

리학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인한 우울증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재난이 슬고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상처는 불면증과 여러 가지 심리적 압박 속에 사립리해 하여 심각한 대인 기피증과 우울증을 유발한다. 사람이 우울해지면 에너지가 감퇴되고 행동이 느려지며 짜증이 늘어나고 무기력증이 온다. 텅 빈 가슴을 채울 길 없어 음식만 보면 배가 터지도록 먹기만 하거나, 괴롭고 힘든 그 상황을 다 잊어버리려고 하루 종일 잠을 자거나, 매일 배란다에 나와 앉아 울며 세상을 원망하고 포기하려고도 한다. 이런 우울증이 어느 순간 견드려지면 실패한 자신의 처지를 향하여 날카롭고 냉정한 공격을 스스로에게 반복적으로 가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친 지금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하는가? 삶을 격리시켜 관찰과 관조의 대상으로 대체하지 말아야 한다. 삶을 마냥 쳐다보지 말고 삶과 하나가 되어 이야기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며 즐겨워해야 한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선물이다. 삶은 뜨거운 것이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 희망의 꿈을 놓지 않음

면 반드시 반전이 기적처럼 일어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재해석함으로써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다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한다.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이상황을 해석하는 자신의 관점을 변화 시키는 것이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가르친다. (살전 5:16). 그리고 "즐거워하라"고 가르친다. 기뻐하고, 즐겁다는 말을 한자로 바꾸면 기뻐 희(喜) 즐겁 락(樂), 희락(喜樂)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심지어 지금처럼 암울한 상황에도 희락의 사람이 되기를 가르치신다. 깊이 생각해보면 참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하신 것처럼 느껴진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항상 웃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 지금은 더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의 원래 계획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즐겁고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이란 죄로 인하여 주어진 기쁨이 사라지고 말았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땅은 저주를 받고 인간은 사망에게 정복을 당했다. 두려움과

저주와 사망을 없애고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으로 오셨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희락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고난을 재해석함으로써 희락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상황을 해석하는 자신의 관점을 변화시키면 희락의 열매가 맺히지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기쁘고 즐거우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게 되고, 심리적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 면역 체계를 높인다. 즉 우울감을 희락으로 반전시키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위기에 강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도 끈질긴 생명력으로 나라를 지켜왔고, IMF의 위기에 모든 국민이 금 모으기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였으며 경제 강국으로 한강의 신화를 증명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 위기의 시국을 분명히 잘 극복할 것이다. 두렵고 우울한 마음을 희락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회복된 미래를 기적처럼 초월하는 출발선임을 기억하자.

社說

코로나19 장기화 방역 장비 확충 서둘러야

빠르게 확산하는 코로나19를 차단할 방역 장비가 태부족이어서 광주·전남 지역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론 광주에서는 지난 24일 이후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집계(27일 오후 4시 현재)에 따르면 현재 국내 확진자는 모두 1766명이다. 하루만에 505명이나 늘었다. 지난달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하루 증가 인원으로는 최고치다. 광주에서는 지난 24일 이후 4일째 추가 확진 환자가 없다.

하지만 광주시의 2만2800여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 과정에서 230여 명이 목 아픔 등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도 1만3597명의 도내 신천지 교인 명단을 토대로 전수조사 중이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전남 방역 현장에서는 장비와 시설의 태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산구는 보유 중인 열화상

카메라 3대를 이달 5일 광주의 관문인 송정역(2대)과 공항(1대)에 분산 배치했으나, 최근 1대를 수거해 구청에 설치했다. 열화상 카메라가 1대뿐인 동구는 한국마사회 측으로부터 열화상 카메라를 빌렸다. 북구가 보유한 열화상 카메라도 2대뿐이다. 읍읍 구급차, 읍읍 텐트 등 격리 시설 및 장비와 방호복도 크게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2009년 발생한 신종플루가 종식까지 무려 1년이 걸렸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장기적 안목에서 1차 방어선인 방역 장비 등을 서둘러 확충하고 늘어나는 환자에 대비해 읍읍 병상을 대체할 병실 확보 등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

마스크 부족의 선례에서 보듯이 방역·의료 장비의 수요와 공급을 시장에만 맡겨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 또한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착한 건물주 운동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기를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이 광주에서도 시작됐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위해 건물주들이 고등 분담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것을 말한다.

광주에서는 1913 송정역시장 상인들이 가장 먼저 운동에 동참했다. 상인회에 소속된 점포 건물주 25명은 코로나 사태 추이를 감안해 4개월 동안 임대료를 10~25%까지 인하해 주기로 했다. 상인회에 가입하지 않은 건물주 50여 명과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임대료 인하 참여 점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야울렛도 이번 달 임대료를 10% 가량 인하하기로 해 40여 점포가 혜택을 보게 됐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이제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광주시는 산하 공공기관이 임대하는 모든 시설의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시는 나아가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에 대해 지

방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과 함께 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광산구는 송정5일장·월곡시장·비어5일시장 등 지역 내 공설시장 3곳의 사용자 납부를 4월말까지 2개월 유예했다. KT는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정부도 거둬고 나쳤다. 민간의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다면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해 정부가 절반을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영세 상인들의 고통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정부와 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작은 힘이나마 보태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 사회 전 분야로 확산돼 코로나 사태를 조기에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기 고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을 바라며

적인 대응과 시민들의 협조로 비교적 안정적인 대처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전염성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인 만큼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바이러스에게 노출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대책일 것이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4일부터 급남로4가 역의 어른실 승리를 잠정 폐쇄하고 메트로 실버 도우미 활동을 일시 중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시행했다. 그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우선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시민 이용 공간을 철저히 방역하고 있다. 전동차는 1주일에 두 번씩, 각 역사는 매일 소독한다. 손잡이, 각종 시설물 버튼,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일회용 승차권까지 시민의 손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 수시로 소독하며 시민의 불안감까지 닦아 내려 노력하고 있다. 공사 뿐만 아니라 광주시 모든 부문이 같은 마음일 것이다.

아무리 철저한 방역도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무용지물이다.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제는 철저한

개인 위생이 급선무가 됐다. 도시철도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은 승객 간의 위생 관리에 도움이 된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손 씻기다. 수시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어야 한다. 어느 지하철 역에선 화장실에는 물비누가, 고객안내센터에는 손 소독제가 비치돼 있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어르신들이나 임신부, 만성 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시민들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말고, 의료기관 방문 등 불가피한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

특히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시민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야 한다. 또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증상이 심해지면 1339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선별 진료소를 방문하면 된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질 수록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커지게 된다. 때문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한다. 광주시와 산하 공공기관은 우리 모두가 보건소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코로나19와의 전쟁에 치열하게 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큰 힘은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다. 당국을 믿고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해 준다면 지금의 힘겨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집합의 경우 본인의 면역력에 따라 예후 차이가 크다고 한다. 면역력이 잘 형성된 사람은 가볍게 앓고 넘어가지만 면역이 약한 사람은 힘든 과정을 이겨내야 한다. 개인 뿐만이 아니다. 사회도 면역력이 필요하다. 안일함은 트로이 목마처럼 바이러스를 우리 안에 들여 놓는 원인이다.

지나친 공포는 바이러스보다도 먼저 사회를 파괴시키는 적이다. 환자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내는 성숙한 의식도 필요하다. 코로나는 두려운 대상이지만,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은 우리 모두의 면역을 키울 것이다. 시민을 위한 공기업으로서 광주도시철도공사 역시 모든 힘을 다하겠다. 모쪼록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원한다.

無等鼓

은 세상이 '코로나19'에 갇혔다. 확진자 수가 조금이라도 떨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뉴스를 본다.

짜증 나는 뉴스 속에 그나마 아직 인기가 식지 않고 있는 영화 '기생충' 얘기는 다소나마 우리의 숨통을 틔게 해 준다. 제작 관련 뒷얘기나 인터뷰, 해외 관객 순위 갱신 등의 뉴스는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는다. 뿌듯한 마음이 커서인지 심지어 트럼프의 '기생충' 할뜰기 뉴스조차도 기쁘다.

기생(寄生)은 한 생물이 다른 생물체(숙주, 宿主) 표면이나 내부에 붙어살며 이익을 챙기는 동시에 숙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

을 발로 밟아 동지 아래로 떨어뜨리까지 한다. 자기 새끼를 죽인 빠꾸기 새끼를 모든 채 키우는 뱀새가 짝하고, 압살한 행위로 남의 자식 농사를 망친 빠꾸기 어미는 물론 새끼까지도 알뜰기만 하다.

식물 중에도 기생하는 것들이 많다.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가 아니면 직접 보아도 알 수 없다. 일반인들이 구별할 수 있는 정도는 차가버섯과 상황버섯 같은 크기가 큰 대형 버섯 종류이다. 차가버섯은 시베리아 같은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자작나무 등에 기생한다.

차가버섯은 살아 있는 자작나무의 상처를 통해 내부에 침입한 후 15~20년가량 영양분을 빨아 먹으며 성장하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 버섯이 다 자라면 자작나무는 고사한다. 상황버섯도 주로 뽕나무 줄기에 붙어 숙나무가 죽을 때까지 단물을 빨아 먹고 성장한다.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 이름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성금 1억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이다. 아무튼 영화 '기생충'을 숙주로 삼아 한국 영화들이 한층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가길 바란다.

/채희송 사회부장 chae@

기생 동식물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